

2022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정답

1	①	2	④	3	②	4	③	5	③
6	①	7	④	8	①	9	④	10	①
11	⑤	12	⑤	13	①	14	②	15	②
16	⑤	17	⑤	18	④	19	⑤	20	③
21	②	22	②	23	③	24	④	25	②
26	①	27	①	28	③	29	①	30	②
31	③	32	⑤	33	⑤	34	④	35	①
36	⑤	37	③	38	③	39	④	40	⑤
41	④	42	②	43	④	44	①	45	④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를 시작하며 발표 순서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②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발표자는 발표 중에 채팅 창에 올라온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발표자는 수어 인사 캠페인을 본 경험을 언급하며 발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발표자는 '행복'에 대한 수어 동작을 소개하며 직접 시범을 보임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발표자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이 참고한 정보의 출처를 밝혀 청중이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수지 기호와 비수지 기호를 결합하여 [자료 3]의 '행복하니?'라는 의미를 지닌 수어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비수지 기호만으로 '행복하니?'라는 의미문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자료 1]을 제시하고 수어 인사 동작을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발표자는 수지 기호의 요소를 소개하며 [자료 1]의 수어 인사 동작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발표자는 수지 기호인 손 모양의 차이에 따라 수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자료 2]의 '답'과 '경찰'의 예를 들어 알려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발표자는 [자료 3]을 제시하고 청중들이 자료의 동작을 직접 따라 해 보도록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을 이해한다.

학생 2는 수어에서 비수지 기호가 의미를 나타내거나 문장 형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듣고 방송의 수어 통역사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축제 공연의 안무 구성에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발표자가 소개한 방법을 통해 수어 단어를 찾아보려 하고 있으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에 포함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나타낼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를 듣고 평소 자신이 잘

못 알고 있었던 정보를 수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출제의도] 회의 참가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편집부장은 회의를 주도하며 교지의 기사로 실을 제재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사에 구성될 내용을 협의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 중간중간에 상대가 했던 말을 요약하며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편집부장의 첫 번째 말에서,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과 이번 회의에서 협의해야 할 내용이 언급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편집부장의 두 번째 말에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라는 제재가 더 적합하다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공감이나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감의 이유로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며, 이 제재가 환경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편집부장의 세 번째 말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유'를 글의 내용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을 물음의 형식을 통해 제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편집부장의 다섯 번째 말에서 '상업 광고나 게시물 탑재 제한'이라는 방법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학생이 자신의 메일함이나 블로그에서 상업 광고나 게시물을 수시로 삭제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회의의 맥락을 파악한다.

[A]에서는 지난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교지에 실을 기사의 제재를 선정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B]에서는 [A]를 통해 제재로 선정된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와 관련하여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개념,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이유,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방법 등의 내용 요소를 생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회의 참가자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A]에서는 기사의 제재에 대한 회의 참가자의 의견이 드러나 있을 뿐 기사 작성의 방법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④ [A]에는 기사에 실을 제재의 선정과 관련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회의 방법과 절차를 협의하는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⑤ [B]에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회의 참가자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을 뿐 기사 내용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6. [출제의도] 맥락을 고려해 작문의 양상을 파악한다.

(나)의 1문단에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배출하는 예가 아니라 자동차, 공장과 같이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되어 왔던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 (가)의 학생 1의 말에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개념을 설명하자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2문단에서 이와 같은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학생 2의 말에서 탄소 발자국 중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주자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2문단에서 현재 2% 정도인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비중이 2040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편집부장의 말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유를 설명하자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3문단에서 이러한 이유를 데이터 센터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학생 1의 말에서 학생들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4문단에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열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ㄱ은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배출 요인과 배출량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이며, ㄴ에는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되며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에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ㄴ은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ㄱ의 내용을 통해 종이컵과 승용차 사용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양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메일, 전화,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ㄱ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ㄴ의 신문 기사에서, 코로나 19 유행 이후 데이터 센터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ㄷ은 전문가 인터뷰로, ㄷ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자료를 빈번하게 송수신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활용하여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용량 자료의 송수신을 줄이자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자료 활용 방안은 적절하다. ⑤ ㄴ에는 코로나 19 유행 이후 데이터 센터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ㄷ에는 코로나 19 유행 이후 스트리밍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용량 자료를 송수신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ㄴ, ㄷ을 활용하여 코로나 19 유행 이후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급증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자료 활용 방안은 적절하다.

8. [출제의도] 글쓰기 방법을 파악한다.

초고에는 글쓴이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재형의 표현을 사용하여 산책길의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1문단의 '노란 꽃망울', 2문단의 '봄비가 ~ 또랑또랑하게 흐른다.', 3문단의 '산들바람에 꽃눈을 ~ 꽃물이 돈다.' 등에서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3문단에서 해맞이 동산 숲길의 '조팝나무', '폴들', '개나리', '진달래'의 모습을 묘사하여 글쓴이가 본 정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수성동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를 소개하여 장소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9.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과 내용을 파악한다.

4문단에서 글쓴이는 안내 표지를 확인하고 멈추어서 서 두꺼비 바위를 보았고, 얼굴 생김새가 정말 두꺼비 같다고 서술하고 있다. ㉔의 두꺼비 바위에서 위압감을 느꼈다는 내용은 초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㉓은 1문단 '앞집 담장 ~ 꽃망울을 터트렸다.'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㉔은 2문단 '이곳을 지날 ~ 아름답기 때문이다.'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㉕은 3문단 '산들바람에 꽃눈을 ~ 꽃물이 돈다.'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㉖은 5문

단 '다리가 빠근하고 ~마음이 달콤하다.'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을 썼는지 파악한다.

'시인의 언덕에 ~힘줄이 선다.'에서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었다. 산책이 글쓴이에게 의욕을 느끼게 하고 힘을 준다는 점을 '마음의 근육에 힘줄이 선다.'와 같이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집에 돌아오니 ~생기가 넘친다.'에서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이 드러난다.

[오답풀이] ② '시인의 언덕에 ~마음이 순수해진다.'에는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드러나지만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시인의 언덕은 ~영혼의 가압장이다.'에는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과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는 ~느낀다.'에는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글쓴이에게 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은 드러나지 않는다.

11.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주체 높임을 이해한다.

ㄱ의 주체인 '아버지'는 화자에게 높임의 대상이지만, 청자인 '할아버지'에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화자는 주체인 '아버지'와 청자인 '할아버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높이지 않고 있다. 한편 청자인 '할아버지'는 화자에게 높임의 대상이다. 따라서 화자는 '-습니다'를 사용하여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ㄱ의 화자는 선생님의 소유물인 '책'에 대한 높임을 '-시-'로 실현함으로써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② ㄴ은 방송이라는 공격 담화의 객관성을 고려해 '세종대왕'을 높이지 않고 있다. ③ ㄷ의 주체인 '어린이'는 화자에게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화자는 수업이라는 공격인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에 대한 높임을 '-시-'로 실현하고 있다. ④ ㄹ의 주체인 '엄마'는 화자에게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청자인 '손자'에게는 높임의 대상이다. 따라서 화자는 주체인 '엄마'와 청자인 '손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손자' 앞에서 '엄마'에 대한 높임을 '-시-'로 실현하고 있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

c의 중세 국어 '되셔'와 현대 국어 '모셔'에서 '되시다'와 '모시다'는 객체 높임에 사용되는 특수한 어휘로, 객체인 '태자'를 높이기 위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각각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a의 중세 국어 '홍산'과 현대 국어 '하산'에서, '-샤-'와 '-시-'를 각각 사용하여 주체인 '대사'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a의 중세 국어 '거시잇고'와 현대 국어 '것입니까'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없는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잇-'을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b의 중세 국어 '供養(공양)하습고'와 현대 국어 '공양하고'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없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객체인 '어마님'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c의 중세 국어 '부인씨'와 현대 국어 '부인께'에서, 부사격 조사 '씨'와 '께'를 각각 사용하여 객체인 '부인'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출제의도] 'ㅎ'의 음운 변동을 이해한다.

'좋고[조:코]'는 'ㅎ'이 인접한 'ㄱ'과 합쳐져 'ㅋ'으로 축약되므로 ㉞의 예로 적절하며, '닿아[다아]'는 음절

끝소리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아' 앞에서 탈락하므로 ㉜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쌍네[싼네]'는 음절 끝소리의 'ㅎ'이 'ㄷ'으로 교체되고, 인접한 비음의 영향으로 'ㄷ'이 'ㄴ'으로 교체되므로 ㉜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넣는[넌:는]'은 음절 끝소리의 'ㅎ'이 'ㄷ'으로 교체되고 인접한 비음의 영향으로 'ㄷ'이 'ㄴ'으로 교체되므로 ㉞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좁힌[조핀]'은 'ㅎ'이 인접한 'ㅂ'과 합쳐져 'ㅍ'으로 축약되므로 ㉞의 예로 적절하지만, '닿지[달치]'는 'ㅎ'이 인접한 'ㄷ'과 합쳐져 'ㄷ'으로 축약되므로 ㉜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인용 표현을 이해한다.

'어제' 형이 '내일' 시험을 본다고 말한 것은 인용을 하는 화자가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형이 '오늘' 시험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료]의 간접 인용에서의 시간 표현은 '오늘'이 적절하므로, 시간 표현 '오늘'을 '어제'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자기'는 앞서 언급한 '형'을 다시 가리키는 3인칭 재귀 대명사로, '나'를 '자기'로 바르게 바꿨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이곳'은 인용을 하는 화자의 관점에서 먼 거리에 있는 '형'이 위치한 곳을 가리키므로, '이곳'을 '그곳'으로 바르게 바꿨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평서문은 간접 인용에서 종결 어미가 '-다'로 바뀌므로, '-아'를 '-다'로 바르게 바꿨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간접 인용에서는 조사 '고'가 쓰이므로, 직접 인용에 쓰이는 조사 '라고'를 '고'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부정 표현의 특수한 용례를 파악한다.

'그때 거기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잖아.'는 그때 거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는 사실을 '-잖다'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있는 문장으로, '-잖다'가 부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①의 '달갑잖아'는 '흡족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달갑다'를 부정하고 있다. ③의 '두렵잖아요'는 '마음에 염려스럽지 않다.'라는 뜻으로, '두렵다'를 부정하고 있다. ④의 '남부럽잖아'는 '형편이 좋아서 남이 부럽지 않을 만하다.'라는 뜻으로, '남부럽다'를 부정하고 있다. ⑤의 '적잖아요'는 '수나 양이 일정한 기준을 넘는다.'라는 뜻으로, '적다'를 부정하고 있다.

[16~19] (고전시가 수필 복합) (가) 우탁, 「한 손에 막대 잡고」, (나) 작자 미상, 「임이 오마 하거늘」, (다) 김상용, 「백리금파에서」

(가) 우탁, 「한 손에 막대 잡고」
'백발'이 드는 과정을 막고 싶어 하는 화자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나이가 들어 백발이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나 화자는 '가시'와 '막대'를 이용하여 이를 막으려고 한다. 화자의 행동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과 화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백발이 '지름길'을 통해 빠르게 온 것에서 웃음이 유발된다.

(나) 작자 미상, 「임이 오마 하거늘」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을 보고 싶어 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초장에서 임이 온다는 약속을 떠올리며 임을 기다리는 모습이, 중장에서 임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화자가 본 대상을 임이라 생각한 후에는 거침없고 과장되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지만 종장에서 이 모든 것이 화자의 착각이었음을 알아차리며, 밤이어서 몇찍은 상황을 남들이 알아채지 못한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안도한다.

(다) 김상용, 「백리금파에서」
황금 벌판이 펼쳐져 있음에도 아이들의 뱀방으로 쌀알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참새들을 위해 글쓴

이가 기지를 발휘하여 참새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한 경험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글쓴이는 극성스럽게 참새들을 쫓는 아이들에게 '오뎅이'를 상으로 걸고 씨름을 시킨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수줍어 하지만 금세 경쟁의 열기가 달아올라 참새를 쫓는 일은 잊게 된다. 씨름이 진행되는 동안 쌀을 먹은 참새들이 배부른 꿈을 꾸리라 생각하며 글쓴이는 만족감을 나타낸다.

16.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나)에서는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과 '위렁통탕', (다)에서는 '수복수복', '팡팡'을 통해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작중 상황을 생동감 있게 나타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추상적 관념인 늙음을 구체적 대상인 '백발'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것이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고 있지는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시적 대상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을 예찬하고 있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③ (다)에서는 글쓴이가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는 화자가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로 올라가 앉'기도 하며, '주추리 삼대'를 임이라 착각한 대목에서는 한달음에 달려 나가는 등 화자의 공간 이동이 나타난다. 그리고 공간 이동에 따라 입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실망감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서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화자의 공간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시어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

㉠의 '밤'은 '남 옷길 뻗'한 '낮'과 대조되는 시간으로 ㉠은 자신의 행동이 감추어진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 '오늘 밤'은 글쓴이가 아이들의 관심을 딴 데로 끌어 그 시간 동안 배불리 먹은 참새들이 '배부른 꿈을 꿀' 수 있게 글쓴이 자신이 행동한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 입을 만난 시간이 아니며, ㉡은 수확을 끝낸 희열과는 관련이 없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은 부재하는 임에 대한 원망을 살펴보기 어려운 시간으로, ㉣은 글쓴이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없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은 화자 자신이 착각을 하여 행동을 실수한 시간이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 시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은 참새에게 도움을 준 시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는 시간은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여전히 임이 오지 않은 시간이기도 내적 갈등에서 벗어난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은 글쓴이가 내적 갈등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시간은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글쓴이가 아이들에게 상으로 오뎅이를 내건 이유는 아이들의 관심을 돌려 아이들이 참새 쫓는 일을 멈추고 씨름을 하는 동안에 참새들이 쌀알을 배불리 먹게 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오뎅이를 통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나)에서 입을 만나기 위해 '버선'과 '신'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을 과장하여 희화화한 것에서 웃음이 유발된다. 그렇지만 (다)에서 오뎅이를 상으로 받은 '우승자'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희화화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거스를 수 없는 '백발'을 '가

시'와 '막대'로 막으려는 상황이 해학을 유발하는 상황적 요소 중 '상황의 부조화'를 이루는 것이기에 웃음이 유발된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② (나)에서 '입'으로 확신했던 것이 '주추리 삼대'로 밝혀지는 상황이 해학을 유발하는 상황적 요소 중 '상황의 반전'에 해당하기에 웃음이 유발된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③ (다)에서 아이들이 '참새'를 쫓는 것에 관심을 두던 상황이 '오뚜기'를 쟁취하기 위한 씨름에 몰두하는 상황으로 옮겨지는 것이 해학을 유발하는 상황적 요소 중 '상황의 전이'에 해당하기에 웃음이 유발된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④ (가)에서 화자의 '백발'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발'이 '지름길로 오더라'라고 표현하여 늙음이 오히려 빠르게 다가온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다)에서 '참새'에게 쌀알을 배불리 먹게 해 준 일을 '횡령'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웃음이 유발되었다. 두 경우 모두 해학을 유발하는 언어적 요소 중 '재치 있는 표현'의 사용에 해당한다.

[20 ~ 25] (비문학 복합) (가) 아도르노 · 호르크하이머, '계몽의 변증법', (나) 하요 뉘히팅, '표현주의' (가) 아도르노 · 호르크하이머, '계몽의 변증법'

근대 계몽 이성인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인류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원인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글이다.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 과정을,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라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하는 단계이고, 인간에 대한 지배는 사회 전체가 도구적 이성인 의해 총체적으로 관리되면서 개인이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한 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는,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 인간이 감정이나 욕망과 같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를 스스로 억압하는 단계이다. 아도르노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을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하여 자연과 내적 자연의 지배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고, 지배 논리로 전화된 이성의 폭력성과 비합리성을 비판하고 있다.

(나) 하요 뉘히팅, '표현주의'

근대 이성에 대한 회의감과 인간 실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했던 예술 운동인 표현주의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표현주의는 대상의 사실적 재현이라는 기존의 회화적 전통을 거부하고 회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다. 이는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색이나 형태를 왜곡해서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표현주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감정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 불안 등을 화폭에 담아냈다. 훗날 표현주의는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서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으며, 현대 추상 미술이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20. [출제의도] 글의 흐름상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근대 사회의 폭력성과 비합리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아도르노의 주장을, (나)는 근대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과 물질문명의 폐해를 경험한 유럽의 젊은 예술가들이 이를 비판하며 등장한 표현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글 모두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오답풀이] ① 근대 사회의 문제는 제시되어 있으나, 이의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② (가)는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글이므로,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지 않다. ④ 상반된 관점의 두 이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에 대한 내용은 (가)에만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두 글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 [출제의도] 인용된 말의 의도를 파악한다.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에서 '야만의 싹'이란 이성이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함에 따라 인간이 인간을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신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성의 힘이 약화된 것도 아니다. ④ 인간이 인간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집단적 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⑤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아도르노는 세이렌의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알레고리로 보고 그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인간을 유혹해서 제물로 삼는 세이렌은 인간을 위협하는 거대한 자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기>의 세이렌 일화를 분석하면,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세이렌의 제물이 되지 않고 섬을 무사히 지난 것은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자연에 대한 지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섬을 무사히 지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감각을 상실시키고 오로지 노를 짓게 만든 결과, 부하들이 자율성과 비판적 능력을 상실한 채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지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은 것은 노랫소리에 이끌리는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스스로 억압한 것이므로 이는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2문단에서 마티스는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가 주장한 표현의 의미가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의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사회·정치적 긴장 상태에 항거하며, 그동안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예술 운동을 표현주의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의 '이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감상한다.

2, 3문단에 의하면 표현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는 회화의 전통을 거부하고, 대상의 색이나 형태를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작가의 감정이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작품에서 비명

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의 전통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감상자가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작품에서 나타내려고 한 감정은 작가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이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이는 근대 이성인 의해 억압되어 온 인간의 감정, 즉 내적 자연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와 같이 표현주의가 등장하게 된 근대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보기>의 작품에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했던 불안과 고통은 이성이 팽배했던 근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표현주의는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상의 형태를 왜곡하여 나타낸다. <보기>의 작품에서 남자의 얼굴이 해골의 형상을 한 것이나 강물이 꿈틀거리는 모습은 작가가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무시된 채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다. 따라서 작품에서 강물을 검은색으로 표현한 것은 강물의 실제 색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느끼는 고통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5.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미명'의 사전적 의미는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이나 명칭'이다.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에 해당하는 단어는 '규명'이다.

[26 ~ 29] (현대소설) 김주영,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 소설의 화자는 어느 날 받은 편지에 동봉된 고향 사진을 매개로 유년 시절을 회상하게 된다. '나'는 어린 시절 궁핍한 현실로 인한 육체적 허기와 아버지의 부재로 어머니가 품을 팔며 가계를 지탱하느라 자식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한 데서 온 정서적 허기를 겪으며 성장한다. 화자가 어린 시절 겪은 이러한 고통과 성장의 과정을 잘 보여 주는 것이 고미다락에서 지독을 발견한 사건이다. '그날 밤' 이후 달라진 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들은 스스로 고미다락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데, 이는 굶주림으로 인한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이 길러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고미다락에 얽힌 사건은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을 암시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서술자인 '나'는 어린 시절 다락에서 지독을 발견한 사건과 그 후 일어난 사건에 대한 회상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때처럼 어머니를 미워했던 적은 없었다.', '어머니가 우리들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나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등에서 서술자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중략 이전의 사건은 '나'가 지독을 다락에서 발견한 일, 중략 이후의 사건은 그날 밤 이후 어머니의 달라진 행동과 그에 대한 나와 아우의 반응이기 때문에 사건이 반복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소설은 그날 밤 전후의 장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장면의 빈번한 전환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그날 밤을 전후로 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병치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다락이나 집 등의 공간 묘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미래의 일을 암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함정의 모순'은 어머니가 지독에 곡식을 모으려고 한 것이 가족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음 터임에도 자식들

에게 지독의 존재를 숨겨 굶주리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의 명분이 있을 만한 물건들이 없었다는 것과 함정의 모순은 관계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자물쇠가 도난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것과 함정의 모순은 관계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지독에 보관된 곡식의 종류와 함정의 모순은 관계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곡식을 온전히 보관하기 위해 지독을 이용했다는 것과 함정의 모순은 관계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8.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이해한다.

‘아우의 반란’은 항상 형과 행동을 통일하던 아우가 다락 안의 지독이 도둑맞을까 봐 두려워 혼자서라도 집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가리키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는 지독 안 곡식 위에 찍힌 어머니의 손자국에서 곡식을 다루는 어머니의 ‘경계심’이 나타나고, 단 한 톨의 손실도 없게 하려는 어머니의 ‘섬짓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아우가 ‘다급’하게 어머니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다락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들킬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④ 어머니가 자물쇠의 열쇠를 갖고 외출했는지 알 수 없어 난감했다고 표현한 것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생각에 제동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혼자서 집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한 아우의 언행은 형과 한시라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 했던 아우의 이전 행동과 달라진 것이기에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어머니의 행동 변화로 인해 ‘나’는 ‘채워진 다락에 대해 가졌던 강렬한 호기심보다 더욱 강렬하게 다락의 일에 빨려들었다. 그렇지만 ‘다락에 대한 원천적 호기심이 희석되진 않았고 ‘다만 호기심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했으므로 ‘나’의 원천적 호기심이 ㉠에서보다 ㉢에서 모두 희석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다락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던 어머니가 ‘그날 밤 이후로 어머니는 고미다락의 문을 채우지 않았다’는 데서 어머니의 경계심이 ㉠보다 ㉢에서 느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지독 안 곡식 위의 선명한 손도장에서 곡식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다락문이 개방된 이후 그것이 ‘세 사람 모두의 것’이 되었다는 서술에서 ㉢에서 ‘나’와 아우도 곡식에 대한 애착을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어머니는 다락에 대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채워 두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어머니가 다락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잃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다락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나’와 아우가 집을 비워 두고 놀러 나가는 상황이 난감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다락 안에 있는 곡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앞에서 그곳을 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서술에서 ㉠에서 다락에 몰래 출입하던 어머니가 ㉢에서 ‘나’와 아우 앞에서 다락에 출입했음을 알 수 있다.

[30~34] (사회) 전상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사전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유 식별 정보, 민감 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는 별도의 동의

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을 때 수집 항목을 강조하여 표현해야 한다. 또한 이 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에서 개인정보를 익명 정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 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30. [출제의도] 개괄적 정보를 파악한다.

개인정보를 익명 정보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임을 설명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6문단에서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가명 정보 처리 방안이 마련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커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5문단에 따르면 익명 정보는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반면 6문단에 따르면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와 비교적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오답풀이] ① 6문단에 따르면 가명 정보는 가명 처리되기 전의 개인정보와 일대일로 대응하지만, 익명 정보는 가명 정보와 달리 익명 처리되기 전의 개인정보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② 6문단에 따르면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될 수 있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익명 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렵지만, 6문단에 따르면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에 비해 보다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⑤ 6문단에 따르면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또한 5문단에 따르면 익명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익명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다.

<보기>에서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소극적 성격의 권리로 설명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삭제, 정정 등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데,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삭제, 정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점은, 헌법 제17조만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공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소극적 성격의 권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청구권적 성격을 포괄하기 어렵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

자에게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권리가 아니다.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 권리가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을 우선하여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3.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2문단에 따르면 사망자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부자 장학 재단’이라는 명칭은 단체의 이름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망자인 ‘이부자’의 이름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김○우’라는 이름은 담임을 맡은 학급과 함께 제공될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② 개인의 휴대 전화 번호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③ 사망자의 유족은 살아 있는 사람이며, 얼굴을 촬영한 동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④ 원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얼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3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다.

4문단에 따르면 건강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 항목을 강조해서 표시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따르면 ‘회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자, ‘회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므로 개인정보의 주체에 해당한다. ② 3문단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사전 동의 제도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⑤ 4문단에 따르면 건강 정보는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수집할 때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5~37] (현대시) (가)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 복효근,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가)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화자는 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복숭아나무(타인)를 판단하고 거리감을 느끼지만, 대상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음을 나타낸 작품이다.

(나) 복효근,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화자는 잔디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다고 인식하지만, 사람들의 말소리나 웃음소리가 청량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자연물이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전해 준다는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생명력이 서로 순환되고 있음을 나타낸 작품이다.

35.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흰꽃’, ‘분홍꽃’을 통해 복숭아나무를, (나)는 ‘푸른 잔디’, ‘푸른 풀잎’을 통해 잔디, 풀잎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는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라’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는 ‘-습니다’와 같은 경어체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지만, (나)는 경어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는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에서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지만, (가)는 후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반복하여 나타나 있지 않다.

36.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가)의 화자는 처음에 복숭아나무에 대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화자는 ㉠을 통해 복숭아나무를 지나치고 싶은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잔디가 밟혀 죽었을 거라는 걱정이 있었다. 화자는 ㉡을 통해 '사람의 몸 속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 있는' 잔디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에는 대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에는 연민을 느끼는 마음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에는 친밀감이 나타나 있지만, ㉠에는 대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에는 대상에 대한 이질감이 나타나 있지만, ㉡에는 대상과 일체감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에는 대상에 대한 상실감이, ㉡에는 대상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7. [출제의도] 시상의 흐름에 따라 두 작품을 엮어 감상한다.

(가)의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수많은 '꽃빛'을 피우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이기에 외로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는 내용은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타인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감상과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는 표현은 복숭아나무를 피상적으로 관찰하여 선입견을 나타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② '푸른 잔디의 ~ 청량하라'라는 표현은 죽은 잔디가 사람들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자연물과 사람들의 관계를 새롭게 발견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④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은 복숭아나무가 의미하는 타인에 대한 화자의 진정한 이해와 교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⑤ '언젠가는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표현은 잔디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자연의 순환적 원리를 나타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8~41] (기술) 김학수, '인공지능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의 자연어 처리 기술'

이 글은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에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인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교정 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된 문자열을 올바른 문자열로 바꿔 주는 방식이며,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은 띄어쓰기가 올바르게 구현된 문장에서 추출한 통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잘못된 띄어쓰기를 보정해 주는 방식이다.

3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한다.

2문단에 의하면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의 첫 번째 단계인 '전처리'에서는 국어에 쓰이는 음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꾸어 준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부터는 입력된 문장을 어절 단위의 문자열로 나누어 처리하므로, 각 단계마다 입력된 문장을 음절 단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의하면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잘못 입력된 문장이 보정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1문단에 의하면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한 다음, 오류를 보정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 의하면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에서 문장의 처음과 끝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 의하면 보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의 양을 늘리면 처리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3문단에 의하면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에서는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 이에 따라 '틀어쪼'와 '틀어췌'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하므로, '틀어췌'만을 교정 후보로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의하면 '전처리' 단계에서는 불분명하게 입력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 준다. 이에 따라 '왓'이라는 음절은 국어에 쓰이지 않으므로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인 '왓츠'로 바꿔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3문단에 의하면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결과 문장으로 도출된다. 이에 따라 '쇼팽의'라는 문자열은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 문장으로 바로 보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2문단에 의하면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에서는 어절 단위의 문자열이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틀어쪼'라는 문자열은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므로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보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3문단에 의하면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단계에서는 교정 후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자열을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하여 결과 문장을 도출한다. 이에 따라 교정 후보 '틀어쪼'와 '틀어췌' 중 어휘별 통계 데이터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틀어췌'를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4문단에 의하면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에서는 입력 문장의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변환한 다음 통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 오류를 보정한다. 따라서 <보기>의 통계 데이터 빈도수 비교 결과 중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⑥의 '학생이(1000)'이 ④의 '학생이(1010)'보다 빈도수가 높은 'ㄱ'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④의 '생(01)'이 ⑥의 '생(00)'보다 크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⑥의 '학생(100)'이 ④의 '학생(101)'이 보다 작으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④의 '이다(101)'이 ⑥의 '이다(001)'보다 크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⑥의 '생이다(0001)'이 ④의 '생이다(0101)'보다 작으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추출하다'는 '전체 속에서 어떤 요소를 뽑아낸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추출한'을 '고친'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기반'은 '기초가 될 만한 바탕'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기반으로'는 '바탕으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구분하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갈라 나누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구분하여'는 '나누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생성하다'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생성한다'는 '만든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향상시키다'는 '수준이나 기술 따위가 나아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앞에 '정확도가 쓰인 문맥을 고려해 볼 때 '향상시키기'를 '높이기'로 바꾸어 쓸 수 있다.

[42~45] (교전소설) 작자 미상, 「월영남자전」

이 작품은 천상 선녀였던 월영이 호원의 딸로 태어나

최희성과 정혼하나 온갖 고난을 겪고 마침내 행복을 이룬다는 내용의 가정소설이다. 월영이 위 자사의 강제 결혼 시도 등 많은 고난을 물리치고 최생과 혼인을 이루는 과정을 중심으로 인물의 현숙함과 비범함이 강조되며 서사적 흥미를 높이고 있다.

42.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작품은 월영 남자가 위 자사의 강제 혼인 요청에 맞서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서술자는 남자가 관군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규중에 조그마한 처자로 ~ 목숨을 아깝이라', '자사 듣기를 다해마 ~ 지혜 용맹 있는 여자라'라며 남자의 인물됨과 사건 전개 내용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꿈과 현실이 교차되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다른 사물에 빗대어 풍자 등을 나타내는 우의적 기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된 액자식 구성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인물의 외양과 행동에 대한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는 제시되지 않았다.

43.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은 남자가 금백 채단을 도로 위 자사에게 보낸 과거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은 위 자사가 보낸 관군을 물리친 일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 ㉡은 모두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주요 내용을 생략하여 반복적 진술을 피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풀이] ① ㉠은 인물 간의 내재된 갈등이 언급된 것이 아니다. ② ㉠은 과거 사건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다양한 입장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물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③ ㉡은 인물의 성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⑤ ㉡은 인물이 앞으로 취할 행동을 나타낸다. 그러나 ㉡은 과거 사건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물이 앞으로 취할 행동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44.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A]는 위 자사가 보낸 서간 내용이 거짓임을 남자가 눈치챈 근거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남자가 서간 내용에 대해 의심스러워 하는 근거로, [A]에는 최생이 자신에게 그간의 안위를 묻지 않았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② 최생이 먼 길에 노복만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서간의 말씀이 심히 허소하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월귀탄은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최상서는 정직한 군자로 원로에 보배를 보낼 리 없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남자는 관군에 맞설 때 목숨을 보전하려는 이유로 부모의 유언과 후사를 근심함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부모의 유언을 언급하고 후사를 근심한다는 것은 고난을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근대적 여성상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보기>를 바탕으로 한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위 자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점을 내세워 남자와 혼인하려 한다는 점에서 남자와 최생의 혼인을 어렵게 하는 혼사 장애 모티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② 위 자사의 명령을 받은 관군들이 남자를 납치하려는 점에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목적을 이루려는 권력의 폭력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③ 남자가 위 자사의 혼인 요청에 대해 인륜대절을 말하며 사대부 여자의 도리를 내세우는 점에서 인륜을 중시하는 주인공의 가치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⑤ 위 자사를 피하기 위해 남자가 거짓으로 병이 위중하다고 꾸민 후 남북을 입고 금안으로 떠나는 점에서 주인공의 지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